

서포인의 ‘좌측담장’



케미스트리를 부탁해

케미스트리(chemistry). 우리말 뜻은 화학(化學)이다.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화학공학과 할 때 그 화학. 그리고 영 어사전의 세 번째 항목에는 ‘화학 반응’이라는 설명도 보이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끌리는 것을 가리킴’이라고 돼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성적 끌림을 뜻한다고 한다.

이토록 과학적이지만 요사스럽게도(?) 보이는 이 영어 단어가 한국어 사용자, 특히 스포츠팬들에게는 일종의 속어가 되어 통용되고 있다. 케미스트리, 줄여서 ‘케미’라고 부른다. 팀 스포츠에서 선수 간의 호흡과 유희를 일컫는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조직력이 좋다” “호흡이 잘 맞는다” 같은 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따지자면 경기장 안과 바깥,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의 화학적 결합에 가까울 것이다.

최고의 선수만 모아 놓는다 하여 저절로 우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체 종목에서의 케미는 개개인의 능력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유희유가 된다. 팀을 조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며, 골이나 승리라는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한다.

현대 스포츠에서 코치나 감독의 역할 또한 이러한 케미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량이 정상급에 올라선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에 경우, 개인의 수준을 바꾸는 것보다, 그 수

준들의 조화를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때 ‘악의 제국’이라 불리며 대형 선수를 싸슬이해 갔던 뉴욕 양키즈 또한 우승의 열매는 최고액 선수들마저 팀의 규율에 충실히 복무함에 따라 가능했다. 세계적 스타들을 모으는 ‘갈라티코 정책’을 펼쳤던 레알 마드리드 또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감독이 필요했다.

성공리에 진행 중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케미스트리는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적 찬사와 여러 논란을 함께 겪으며 탄생한 아이스하키 남부 단일팀은 선수 간 호흡이 더욱 중요한 구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팀 케미를 잘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기술력과 체력에서 하키 강국과 워낙 큰 격차를 보였기에 단일팀은 패배를 감당해야 했지만, 최선을 다해 얼음을 지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감히 화학적 결합을 논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안아 주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단일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쇼트트랙 여자 3000미터 계주 예선에서 대한민국은 병판에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고도 빠르게 다음 플레이에 이어가 오히려 1위로 결승에 진출한다.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금메달. 신체 접촉과 몸싸움이 빈번하여 변수가 혼란 종목에

서 선수들의 긴밀한 호흡은 변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며 개개인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올림픽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의 경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스톤 하나하나에서 열심히 느껴진다. 대회 최고 유행어일 것이 분명한 ‘엠미!’는 팀 케미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지 외롭고 불안한 순간에 ‘엠미!’라고 외치면 나를 도울 누군가 나타나 내가 던진 스톤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것만 같은 사람이 필자뿐은 아닐 것이다.

사실 팀 케미스트리라는 용어는 더그아웃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연봉 수억 원의 베테랑에서부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 선수까지, 팀의 연구지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프로 생활을 하는 선수부터 시즌 직전에 이적해 온 선수까지, 프로야구는 화학으로 치면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것, 즉 선수들의 케미스트리를 증대시키는 것은 우승의 필수 조건이다. 이따금씩 야구 뉴스를 장식하는 팀 내 파벌과 불화, 태업과 폭력은 케미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물론 그런 팀의 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올림픽에서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의 논란이 그렇다. 연맹에 대한 비판,

특정 선수에 대한 비난 모두를 차지하고, 그들은 팀으로서의 케미가 의심의 여지 없이 나빠졌다. 당연히 성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니다. 케미스트리는 기술이 아닌 정신이다. 이를 스포츠 정신이라고 불라도 좋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팀과 함께한다는 정신. 게다가 무대는 올림픽이 아니었던가.

KIA 타이거즈의 캐치프레이즈는 몇 년째 ‘동행’이다. ‘케미’의 격조를 높인 표현처럼 보인다. 타이거즈는 동행 정신으로 훌륭한 경기를 다룬 팀보다 더 많이 만들어 냈고, 그 결과들이 쌓여 통합 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 야구팬의 진짜 기쁨은 (물론 우승 장면을 보는 것이지만) 우리 팀의 케미를 발견할 때다. 에이스 투수와 제1포수의 든든한 호흡, 유격수와 2루수의 화려한 호흡, 프런트와 현장의 보이지 않는 호흡... 그런 것들을 팬들은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이뤄질 때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야구 시즌이 시작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올림픽의 모든 선수와, 이제 곧 시작할 야구의 모든 선수와, 동료와 팬 모두 함께하는 화학적 스포츠 정신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팬은 그들의 플레이에 가까이 동행할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취업난과 청년 건강



김진리 H+양자병원 과장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건강과 활기에 넘칠 것 같은 세대. 그러나 최근에는 20대의 건강이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에서 20대의 증가율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연간 통계에서는 20대 증가율이 30.8%로 30대 21.1%, 40대 20.3%, 50대 26.8%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자료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요양급여비용의 증가가 그 연령대의 병원 이용 빈도 및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6년 사망 원인 통계’

에서도 20대의 고의적 자해(자살) 구성비가 가장 높고 암으로 인한 사망 또한 3위를 차지하는 등 20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20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면 ‘젊음=건강’이라는 공식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20대들은 ‘N포세대’라는 말처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몸은 물론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20대의 건강지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위장질환이다. 특히 20대의 사망 원인 3위는 암인데, 그 중 위암은 백혈병(1.1명)과 뇌암(0.5명)에 이어 사망 원인 3위(0.3명)를 차지하고 있다. 위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여러 단계에 작용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 중 20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암 발생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바쁜 가운데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혼밥’ 등으로 급하게 끼니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혼밥’으로 식사를 대충 하게 된

다는 답변이 35.8%,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먹게 된다는 답변이 19.2%에 달했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신선하지 못한 음식의 섭취, 염분이나 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음식(포장된 유통제품, 훈제육 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위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대의 잘못된 식습관은 단순히 위암 위험성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지난 2016년 20대 환자 수는 34만 3736명으로 2012년 대비 20.6%가 증가했다. 이는 10대(11.8%)는 물론 30대(8.3%), 40대(10.0%)보다 높은 수치다. 장염 또한 비슷하다. 2016년 환자는 65만 6303명으로 2012년 대비 28.4%가 증가했는데 이 또한 10대(9.6%), 30대(23.7%), 40대(25.6%)보다 높다.

20대의 건강 악화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2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인데, 이는 20대가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살 외에도 20대들의 정신질환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세는 2만 7642명으로 2011년 대비 24%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우울

장애 유병률이 20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20대의 정신건강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0대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것은 그들 잘못만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20대 스스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먼저 위장질환은 건강한 식생활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아침 식사 결석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20대는 삼시 세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필요하며,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넉넉하게 잡는 게 좋다. 식단은 인스턴트는 피하고 필수 영양소가 풍부 든 음식을 다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숨기지 말고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감정 변화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증상이 계속 되는데도 수면유도제 등의 의존하면 치료 시기를 불규칙하게 되며, 한 달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기고

‘고싸움 박물관’ 육성, 지역 사회의 과업이다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광주 남구 대촌동 칠석마을에는 고싸움놀이 전수관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운영 콘텐츠의 내용이 엉성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전시물도 영상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고싸움은 도작(稻作) 문화권 즉 벼농사 중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최대 최고 수준의 전통 민속놀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광주 대촌동, 전남 장흥, 나주 남평 등지에서 성대하게 행해진 것으로 전해지는 고싸움은 수십만 평에 이르는 광활한 평야를 배후로 하는 광대한 생산력이 있는 곳에서나 연행될 수 있는 어려움을 갖춘 대규모

의 집단놀이이다. 이처럼 거대한 생산력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된 고싸움의 유래에는 몇 개의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

먼저 줄다리기 유래설로 뒤로 물러서며 상대편의 줄을 당겨 오면 이기는 다소 평면적인 줄다리기를 보다 역동적인 놀이로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고싸움으로 보는 견해이다. 고싸움으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다시 곳을 해체하여 일(一)자형의 굵은 줄을 만든 다음 최종 승부를 가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줄다리기와 고싸움은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아 줄다리기에 고싸움이 유래하였을 개연성을 크게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자적인 놀이 발생설이 있다. 고싸움이 정식적인 줄다리기 시합의 앞날이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고싸움을 통하여 놀이판의 흥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다음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놀이판의 신명을 배가시키고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의 견해로 지기진압(地氣鎮壓) 연희설이 있다. 칠석마을의 경우 ‘누워 있는 소(臥牛)’의 형국인데, 소가 일어나면 마을에 큰 우환이 생기므로 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이 모여 땅의 기운을 짓누르는 놀이를 연행했던 데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앞선 두 가지의 유래설에 대한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기능을 갖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위의 유래설들은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발생 배경을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예속(農耕豫祝)의 의미와 주민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집중되었던 농업 노동의 호흡을 맞추는 예행연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도작문화의 상징적 연희이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싸움놀이를 온전히 보존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 키워 나가려면 현재의 전수관 체계로는 한계가 적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시급히 단일한 테마를 가진 전문 박물관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력과 재정이 여의치 않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규모 있는 하나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현실적 여건을 뚫고, 충남 당진시에서는 고싸움보다 훨씬 넓은 시기

에 발굴 육성된 기지시줄다리기놀이를 테마로 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을 건립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고싸움 박물관 건립이 가져오는 기대 효과는 먼저 체계적인 전시 체계의 구축을 통해 놀이의 특성을 보다 실감 있게 총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며, 역동적인 문화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의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 및 사회 교육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계층에 고싸움과 농경문화의 특징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초중고생 등 신세대들의 집중적 교육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무형 전통유산의 원형은 시대의 흐름에 비례하여 급격히 소멸·훼손되는 지명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고싸움 마을 주민들과 지역 문화계 그리고 시청 및 구청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차원의 고싸움 박물관 건립 공약도 검토해 볼 만한 시안이 아닌 가 생각된다.

社說

전남의 다문화 학생 1만 명 넘어섰다는데

전남 지역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재와 혼인·가임 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늘어선 지역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유야 어쨌든 다문화가정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정서는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2세인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언제부터인가 다문화 주부가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농촌 풍경이 됐다. 쌀농사는 기본이고,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는 그들이 없으면 수확마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다문화 여성이 가족 구성과 출산을 결정하면서 어주 여성에 대한 초창기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국가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2세에 대한 교육과 2세들의 사회 진출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남의 다문화 학생 규모는 2013년

4998명에서 시작해 지난해 9169명까지 늘어났으며, 올해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30%를 넘는 학교도 무려 146곳이나 되고, 늘어선 유치원의 경우는 다문화 아동이 없으면 운영이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다문화가정을 이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가 다문화 아동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권 아이들이 아닌 동남아 아이들일 경우 더욱 심하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을 우리 자녀와 동등하게 여기는 학부모들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다문화 주부와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교사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편성 시 다문화 아동을 특정 국가별로 묶어 배치하고, 교사들에게는 국가별 다문화 교육에 이수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어린이문화원 운영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없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야 할 국립기관의 체험 시설이 운영 미흡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용자를 생 각하기보다는 운영자 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립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는 지적까지 하는 판이다. 다음 아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이하 어린이 문화원) 이야기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아침 살 땀 떨어지고 함께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어린이문화원을 찾은 박승연(40) 씨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시작되는 ‘뚝뚝 약기 만들기’ 체험 활동에 신청했는데 한 도슨트(전시해설사)로부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된다”라는 질책을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뒤 시계를 보니 4시 11분이었다고 한다. 불과 1분이라도 늦은 것은 늦은 것이지만, 박 씨는 “딸 아이 앞에서 면박을 당하니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박주희(39)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주말 아들과 어린이문화원 내 ‘생각 공작소’를 찾았다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갑작적인 태도에 깜짝 놀랐다. 스피드 볼록을 쌓으며 마음껏 즐기는 체험 공간인데도 잠시 아이들이 볼록 위에 앉기라도 하면 직원들이 다가가 안전을 이유로 통제한다. 상담수의 아이는 도슨트의 논치를 보느라 제대로 놀지 못했다고 한다.

어린이문화원은 지난 2015년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로 규모와 시설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한데도 운영이 낙제점 이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문제는 어린이문화원의 불친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장 초기부터 안일한 운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를 대접하지 않는 어린이 문화원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無等鼓

평창동계올림픽이 슬한 화제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 여자 컬링팀은 세계 최강 팀들을 격파하며 ‘최고 히트 상품’이 됐다. 빙상 여제 이상화와 일본 국가대표 고다이라 나오의 선의의 경쟁과 뜨거운 포용은 감동적이었다.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뜨개질하는 코치’다. 지난 10일 열린 스노보드 경기 중 출발대에 선 선수 옆에서 태연히(?) 뜨개질을 하는 어느 코치의 모습이 카메라 아래 잡혔다.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코치에 익숙한 시

안테의 법칙

상적이었다. 핀란드에서 뜨개질은 ‘국민 취미’라고 한다. 핀란드 학교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뜨개질·바느질·목공 등을 가르친다. 자신의 장난감을 직접 만들고 남녀노소 뜨개질을 배우고 뜨개질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핀란드에서 뜨개질하는 핀란드 코치 모습은 생소했다. 핀란드 대표팀은 2014년 소치올림픽부터 ‘단체 뜨개질’에 나섰다. 심리상담사가 선수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관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창에서도 집단 뜨개질을 하며, 올해 70살인 핀란드 대통령의 늦둥이 아기에겐 줄 당구를 만들고 있다. 9년 전 30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 핀란드 대통령은, 고향에도 최근 아들을 낳아 화제가 되었다.

핀란드 선수단의 ‘뜨개질 에이스’가 ‘남자’ 스키점프 대표선수라는 것도 인

런 것들이다. ‘당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마라, 누구든 당신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여울은 이 시계명을 ‘삶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행복 그 자체를 조용히 성찰하는 자세를 길러 주는 것들’이라 해석했다. 여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에선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북유럽의 정서가 더욱 부럽게 만 느껴진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